

Open Doors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소식지

VOL.288 | 2026년 7~8월

지하로 내몰린

중국 비밀 교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칼럼] 해외 선교에 대한 시각의 적극적 전환

지하로 숨어든 교회

기도로 굳건히 서십시오

중국의 지하 기독교인들과 가정 교회의 성장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중국 / 라오스

2025년도 오픈도어선교회 현장 사역 보고서

Heart to Heart

- 지원된 부고

- 금요 기도회

- 오픈도어선교회 자료 활용 사례

- 각종 채널 안내

희망의 선물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Open Doors

OPENING DOORS TO THE WORLD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6년 7~8월호 | 통권 288호 |
등록번호 - 서초, 라11865

대표 :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임시 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조남준 목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임훈희, 김다은, 민태홍,
유진영, 신예은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김안나, 장요셉, 송례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202호(방배동)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신청 및 일시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로 후원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 후원 계좌>

선교회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 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Open Doors)?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국제 선교 단체로 1955년 평신도 사역자 브라더 앤드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국제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오픈도어의 한국 지부입니다.

사명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박해 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여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경 배달 및 제자 훈련
- 여성과 치유 사역
- 사회 경제 개발
- 난민 지원과 변호
-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목차

03 칼럼: 해외 선교에 대한 시각의 적극적 전환

04 지하로 숨어든 교회

08 기도로 굳건히 서십시오

10 중국의 지하 기독교인들과 가정 교회의 성장

16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중국 / 라오스

18 2025년도 오픈도어선교회 현장 사역 보고서

24 Heart To Heart
- 지원된 부고 - 금요 기도회
- 오픈도어선교회 자료 활용 사례 - 각종 채널 안내

27 희망의 선물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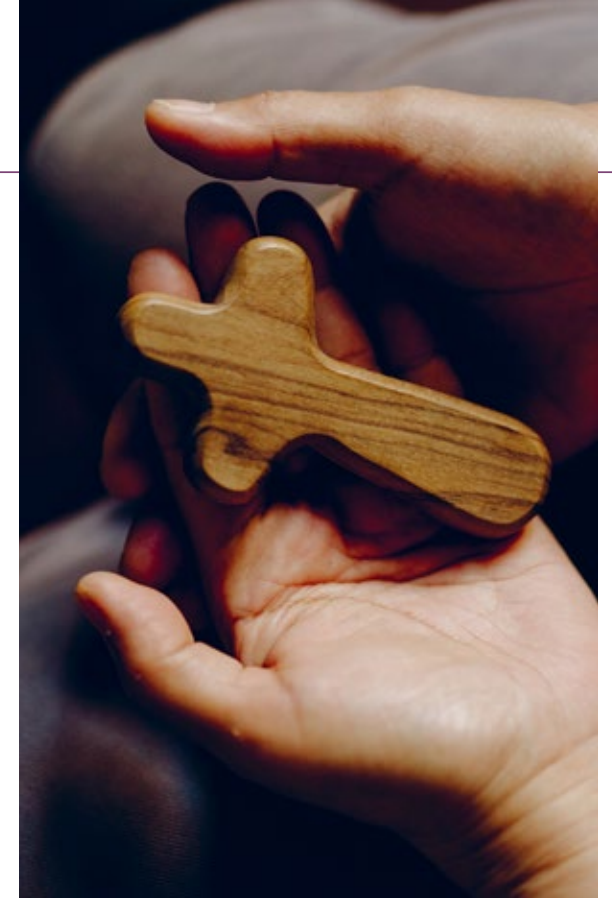
해외 선교에 대한 시각의 적극적 전환

노창영 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작년(2025년)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을 포함하면 278만 명 정도가 되며, 이는 한국 인구의 5.4% 정도가 된다. 중국이 97만 명으로 제일 많고(35.6%), 베트남이 34만 명, 태국이 17만 명, 그 뒤로 미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일본, 러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미얀마, 인도, 캐나다, 대만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현장에서의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핍박이 있는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한국에 들어온 그들은 복음 전도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전도 가능성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도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는 인력, 물질, 후원, 문화 갈등, 자녀 교육, 건강, 핍박 등의 제한, 희생, 헌신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교단별, 선교단체별, 개교회별로 이들을 향한 교회 선교부서와 다양한 선교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278만 명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같은 문제가 탈북자들(북한이탈주민)에게도 있다. 작년 2025년 1분기 탈북자의 숫자는 34,352명이다. 이 중 여성 비율이 72%이다. 탈북자들은 탈출 후 즉각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국과 몽골이나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이다. 특히 많은 여성들은 중국으로 일단



들어가서 생존을 위한 결혼, 가정폭력, 각종 학대에 시달리다가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한국 남성이나 탈북 남성과 결혼하거나, 재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가정 문제와 사회부적응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북한의 핍박받는 교회와 연대한 북한 내에서의 직접적인 선교사역이 힘들지만 우리는 북한 선교를 탈북자 선교로 시작할 수 있다. 탈북자 선교단체도 많고 이에 힘을 얻는 개교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각개격파적이고, 비효율적인 선교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향하여 해외선교를 할 수 있고, 탈북한 주민들을 향하여 북한 선교를 한국 땅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는 황금같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선교사역이 이들의 고향인 공산권과 북한, 이슬람권, 힌두교권으로 도미노반응(Domino Reaction)으로 역수출된다면 한국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한국 안에 있는 외국인들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하로 숨어든 교회

중국의 극심한 압박은 기독교인들을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하 교회가 여러분의 지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이(Jinyi)*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외부에서 들리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는 오판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이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100명이 넘는 청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진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제복을 입은 중국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도들은 포위되어 연행되었습니다. 가정교회 리더이자 진이의 남편인 장(Zhang)*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진이의 비밀 지하 가정교회는 산산조각이 났고 진이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진이에게 이 시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려짐과 고립

남편이 감옥에 갇히자 진이는 아이들을 부양할 길이 막막해졌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 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당국을 두려워했고, 이 일에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수년간 학생 사역에 헌신해 온 진이는 말합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정말 컸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게 감당할 힘이 있나?’ 싶었고, 심지어 하나님 원망도 처절하게 했죠.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심지어 하나님 원망까지 들
라고요.” - 진이

끊임없는 감시

중국 정부가 교회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진이의 이야기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당국은 가정교회를 찾아내고, 급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으며,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리더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들 진이의 사정을 알면서도 감히 나서서 사람이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 교회가 다섯 곳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공인한 교회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가정교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규모로 숨죽인 채 숨어 지내고 있죠.”

감시의 눈길은 어디에나 있으며, 당국은 교회 리더들에게 서늘한 경고를 날립니다. 예컨대 ‘차 한잔하자’는 초대([차 마시기])는 곧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종교 활동은 전면 불법화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교회의 성장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기류 속에서, 지하 교회가 아예 자취를 감춰버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지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이는 100명이 넘는 젊은 성도들과 함께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던 중 경찰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사역

진이가 남편은 수감되고 믿음마저 흔들린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을 때, 저희 오픈도어선교회 현지 동역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역자들은 진이를 만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녀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용기 있는 여성은 다시 사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이는 고백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나오다가 이제는 길 잃은 양처럼 흩어져 버린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꼭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죠.”

“예전에 받았던 소명이 다시 뜨겁게 살아났어요.” - 진이

진이는 청년들을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나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청년 모임 장소를 제공했습

니다. 현재 진이의 사역은 70명이 넘는 청년들이 소속된 10개의 지하 소그룹으로 확장되었으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곁에 함께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큰 힘이 돼요.” - 진이

진이는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남편은 아직 감옥에 있고, 우리 모임은 계속 지하에서 숨어서 해야 하니까요. 다들 무서워서 우릴 피하다 보니 리더로서 외롭기도 하고 지원도 절실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과 격려 덕분에 덜 외롭고 덜 무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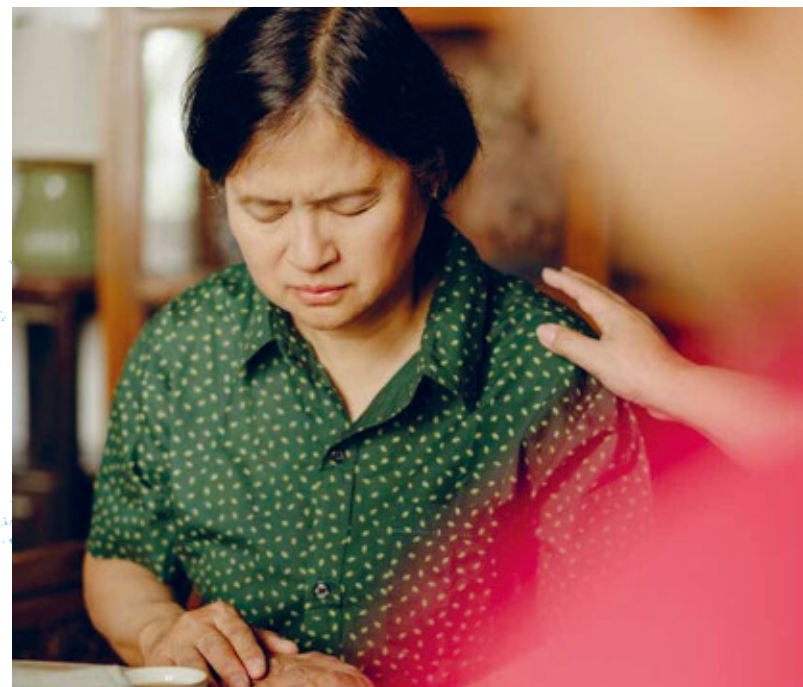
굳건히 서기

중국의 지하 교회들은 진이의 교회처럼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이 있다면, 박해받는 성도들은 굳건히 버틸 수 있으며 교회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성장할 것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비전은 우리와 믿음은 공유하지만 자유는 공유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지하 교회 리더들을 격려하고, 박해 대비 훈련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구호 물품과 기독교 서적을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이와 같은 성도들 곁에서 줄 때, 여러분은 그들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진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이끌어갈 몫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못 짊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이 길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보안을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 동역자들은 진이를 만나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하 교회가 계속 살아 숨 쉬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13

중국에 있는 진이의 교회와 같은 지하 교회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금지된 곳에서 교회를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후원해 주세요

4만 원이 모이면: 지하 교회 성도 한 명에게 실질적인 생활, 의료, 법률 및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만 원이 모이면: 지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견뎌내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8만 원이 모이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지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 후원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기도해 주세요

- 진이를 위해: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진이의 남편 장을 위해: 장이 하루빨리 감옥에서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중국 전역에서 용기 있게 모이고 있는 지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이 금지된 곳에서 지하 교회가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 이미지

지하 교회의 예배 모임에 들어가 본다면 성경 봉독, 찬양, 기도 등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아마 비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를 느낍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이나 라오스의 등록되지 않은 지하 교회가 받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특히 중국에서 당국이 가정교회를 어느 정도 묵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은 체포, 감시, 괴롭힘, 협박, 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이들의 교회는 언제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에도 정부가 공인한 교회가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공산당의 정책과 일치해야 하고, 예배부터 성경 인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합법적인 교회'에 다닐 것인가, 아니면 '지하 교회'로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들의 형제자매들은 우리와 믿음은 공유하지만 자유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해주세요. 성도들이 안전하게 모여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리더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이 인내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과 라오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이 뿌리 뽑히고,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남편은 아직 감옥에 있고 청년 모임은 계속 지하에서 몰래 해야만 해요. 다들 박해의 그늘에 갇혀서 모이는 것 자체를 여전히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진이(Jiny)* (중국, 지하 교회 리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좀 더 나은 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식구들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폰사이(Phonesay)*

(라오스, 박해로 마을에서 쫓겨난 성도)

“근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 구금 지역에서 벗어나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쿤 목사(Pastor Khoun)* (라오스, 마을에서 쫓겨나 구금 지역에 머물고 있는 리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제가 굳건히 서서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칸야(Kanya)*

(라오스, 폭도들에 의해 집이 부서진 성도)



중국의 지하 기독교인들과 가정교회의 성장

1. 중국에서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교회”는 엄밀히 말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규모를 가질 수 있나요?

중국에서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광범위하며, 더 이상 개인 주택에서의 소규모 모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나 아파트에서 모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교회들 중 상당수가 크게 성장했고,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는 지역 당국이 이들의 존재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예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많은 미등록 교회들이 대형 건물을 임대하거나 심지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집에서 모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인한 시스템 밖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교회”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기술적으로는 불법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 규제의 집행이 지역마다 불균등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의 지방 관료들은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미등록 교회의 운영을 조용히 허용해 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교회들이 정치적 활동을 피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 권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들은 정부 개입 없이 공공장소를 사용하고 대규모 회중을 조직하는 등, 때로는 등록된 교회와 거의 다름없이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관용은 2018년 종교 사무조례가 전국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등록 교회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노출을 줄이거나, 개신교를 위한 국가 공인 기구인 삼자애국운동(TSPM)에 가입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여전히 일관되지 않아서, 특정 지역에서는 소수의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한가요?

많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에 대한 법적·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국가가 승인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받습니다. 미등록 교회에 남기를 선택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이들은 더 많은 감시, 괴롭힘, 벌금, 구금을 당하게 되며, 그들의 교회는 강제 폐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조율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당국은 주요 도시의 미등록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왔습니다. 급습, 강제 진입, 의무적인 신원 등록, 체포 등이 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정부 기관, 국유 기업 또는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에 고발당해 직장 내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몇몇 저명한 교회를 폐쇄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다른 교회들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는 중국 속담인 “살계경후(殺雞儆後, 닭을 잡아 원숭이를 놀라게 한다)”로 종종 묘사되는 전략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지하 깊숙이 숨어들고 있습니다.

시온교회(Zion Church) 및 기타 대형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과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은 어느 정도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체포, 감시, 이동 제한을 겪으며 신앙 생활하는 것에 제약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노출이 곧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지하 예배는 대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장소를 바꾸는 작고 세분화된 모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지거나, 개인 주택에서 모이거나, 보안 통신 및 폐쇄형 온라인 모임에 의존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가 다수인 지역처럼 더 외지거나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훨씬 더 신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채택합니다.

3. 중국의 지하교회 예배 모습은 어떠한가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모이는 방식과 장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대규모로 모이는 반면, 어떤 교회들은 소규모 셀 모임으로 나뉩니다. 예배는 개인 주택, 임대 공간 또는 비공개 보안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압박과 위험 수준에 따라 일부 교회는 매우 신중하게 운영되는 반면, 일부 교회는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예배의 내용은 다른 지역의 기독교 예배와 거의 흡사합니다.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설교를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성찬을 나눕니다.

4. 이러한 형태의 모임에서 중국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국 신자들은 해당 교회가 중국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에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벌금, 제재, 강제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에 등록된 교회보다 박해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폐쇄입니다. 지하교회는 예고 없이 급습을 당할 수 있으며, 지도자들은 종종 구금이나 장기 투옥의 표적이 됩니다. 체포는 영장이나 가족 통지 없이 임의로 구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장시간의 심문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신자들은 체포 후 곧 풀려나기도 하지만, 반복된 경고 후에도 지하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은 더 오랜 구금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불법 경영”, “불법 정보 네트워크 이용” 또는 “사기”와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벌금이나 장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시 역시 주요한 위험입니다. 당국은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활동을 모두 모니터링하며(특히 승인되지 않은 플랫폼에 온라인 종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규정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실무

를 보고하도록 주기적으로 경찰서로 소환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금된 지도자가 일시적으로 실종되어 가족들이 연락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방 당국은 간접적인 압박도 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지역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건물주들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받아 교회가 모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교회 활동을 방해하고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소위 소방 안전 문제와 같은 사소한거나 임의적인 위반을 이유로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급습 중에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이 흔히 압수되고, 교회 자산이 훼손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 소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가 내용을 조사하기도 하며, 교회의 회계 장부가 '범죄' 증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중국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에게(그리고 여러 사례에서는 등록된 교회 기독교인들에게도)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감시, 협박, 처벌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5. 중국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내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가정교회 신자들에게 완전히 안전한 지역은 없지만, 위험의 정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018년 이후 강화된 규제와 감시는 다수인 한족을 포함하여 전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개종자들(특히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신자)이 거주하는 소수민족 지역은 종종 한층 더 높은 압박에 직면합니다.

티베트(불교권) 및 신장(이슬람권)과 같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중 박해”로 불리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들 성(省)이 정치적·종교적으로 민감하여 당국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분리주의를 진압하

기 위해 종교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므로, 정부의 강화된 통제를 받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종교적 규제는 특히 혹독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종종 지역의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져 사회적 압박, 차별, 나아가 언어적·신체적 학대로 이어집니다. 개종자들은 가정생활에서 배제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완전히 절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성, 허난성, 안후이성, 산시성의 일부 도시와 같은 특정 지역 및 주요 도시들은 당국의 특별히 긴밀한 감시를 받으며, 다른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본보기로 자주 이용됩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대규모 구금, 교회 폐쇄, 교회와 국가 간의 장기적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지방 관료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눈감아주는 지역은 위험이 더 낮지만, 박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얻거나, 공공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해외 및 외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때, 해당 교회와 목회자 또는 지도자들은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6.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나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많은 신자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용기를 보이며 공개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 기독교인인 공산당원, 공무원, 교사, 그리고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신앙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더 취약한 지역에 있는 다른 신자들은 조용히 혹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강요받습니다.

"조심성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그 지역의 환경과 법 집



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감시와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을 드러내든 숨기든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위험의 강도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신앙 생활하는 이들의 경우, 미등록 상태라는 점 때문에 신앙이 발각되었을 때 압박이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인 상황맥락에 맞추어 개방성의 수준을 조절하며, 공개적인 신앙과 안전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7. 중국의 지하교회와 등록된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중국의 교회는 크게 국가에 등록된 교회와 미등록(지하 또는 가정) 교회로 나뉩니다. 국가에 등록된 개신교 교회는 삼자애국운동(TSPM) 아래에서 운영되며, 등

록된 가톨릭 신자들은 중국천주교애국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들은 합법적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운영되며, 자신들의 가르침과 활동을 공산당 정책에 맞추어야 하고, 기독교의 중국화(Sinicization)—다시 말해 교회의 가르침이 중국 국가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를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지하교회는 이러한 합의를 거부하며 신학적·제도적 독립을 추구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국가의 감독을 교리, 리더십, 영적 자율성의 타협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미등록 교회는 공식 시스템 밖에서 운영되며, 당국은 이를 종종 불법이자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등록된 교회와 지하교회의 관계는 복잡하고 종종 긴장감이 감돕니다. 두 교회 모두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통제, 정당성,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제한된 협력 속에서 분리되어 기능합니다. 일부 신자들은 두 형태의 교회에 모두 출석하기도 하지만, 많은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은 삼자교회 시스템을 결함이 있거나 타협된 것으로 여깁니다.

8. 지하교회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인가요?

교회들이 강화된 감시와 압박 속에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회복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의적이고 신실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구금된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불확실성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신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이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해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정, 특히 복음이 낮설거나 들리지 않는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가 가장 큰 곳에서 기꺼이 섬길 준비가 된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보내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지하교회 내에 강력한 제자 양육 및 리더십 사역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신실하고 순종적인 제자들이 길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중국의 다음 세대—가장 취약한 신자 집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그들 가운데 사역할 더 많은 일꾼이 파송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9.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혹은 숨어서 모이는 창의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단속을 피하면서 모여 예배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신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상의 이유로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한 방식으로는 모임 장소를 돌아가며 변경하는 소그룹 또는 마이크로 그룹으로 나누기, 개인 주택이나 임대된 산업 공간에서 모이기,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또는 보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박해가 더 심한 지역에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자 양육과 성경 훈련 시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며 매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모입니다.

요약하자면, 교회의 목회 모델은 소그룹, 가정, 그리고 신자들 간의 의도적이고 깊은 제자 양육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하고 있습니다. 목양은 실내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야외 모임 및 활동을 통해 함양될 수도 있습니다.

10.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의 지하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동역자 및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지하교회에 다음과 같은 중재(지원)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기초적인 성경 및 제자 양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현지 상황에 맞춘 훈련과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 우리는 종교적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 특히 박해 대비 훈련과 소그룹 제자 양육을 제공합니다.
- 진이(Jinyi)의 사례와 같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영적, 정서적,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현지 상황에 맞춘 기독교 문서(주로 디지털 형태)를 배포합니다.
-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며,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를 목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돕습니다.



지하에서, 압박 속에서... 그러나 피어나는 교회

중국에서 가정 교회를 이끈다는 것은 매 순간 위험과 직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링(Ling)* 사역자가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중국 남서부의 그리스도인 링에게 박해는 단 한 번도 멀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시련은 그녀와 남편 송(Song)*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링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자, 상황은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링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게 가해진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동생은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퍼붓고 위협했습니다.”

박해는 링과 송의 가족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느꼈고, 링의 가족을 향해 수군거리며 철저히 외면하고 따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당국의 직접적인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링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휴대전화가 도청·추적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비밀 감시는 그녀의 마음을 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링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소망을 담대히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원은 이 신실한 여성을 중국 지하 교회의 용기 있는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호하심과 강건하게 하심

오늘날 링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소그룹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초라하고 소박한 가정집에 숨어들어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걸어오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남편 송 형제 역시 리더로 동참하게 되었고, 이들 부부는 소수민족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현지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링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과 기도 덕분에 오픈도어가 주관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의 엄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그녀는 다른 지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고난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

하며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오픈도어선교회의 현지 사역자 마티안(Matian)*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쉬지 않으며, 영적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에 참석한 사역자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있기에 오픈도어선교회의 사역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링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기도를 통해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핵심 사역입니다. 최근에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당국에 연행되면서 여러 차례의 훈련 집회가 취소된 바 있기에, 이처럼 고립된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티안은 덧붙였습니다.

“성도들과 삶을 맞대며 행하는 이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픈도어를 통해 링과 같은 시골 마을의 성도들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링과 송 부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링과 송 부부를 비롯해 중국의 수많은 지하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현지 동역자들을 위해 소수민족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극심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누비는 마티안과 같은 오픈도어의 현지 동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중국 남서부의 지하 교회들을 위해 이 지역의 지하 교회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 부흥하고 번창하여,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본문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으며, 사진은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2025년도 오픈도어선교회

현장 사역 보고서

- 후원금, 이렇게 가치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5년도 오픈도어 현장 사역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 지원 혜택 (Benefits)

1-1. 지역별 수혜자 제공 혜택 비교 (2025년 vs 2024년)

2025년에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에 6,162,769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계획보다 28%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구현 도중 승인된 대규모 구호 프로그램들이 초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 감소로 인해 고정 비용(임대료, 급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2024년)와 비교했을 때는 제공된 총 혜택 수가 36% 감소했습니다.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곳은 아시아 1 지역 (-54%)이며, 그 뒤를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34%), 중동 및 북아프리카(-29%), 아시아 2 지역 (-17%)이이었습니다.



표 1.1: 지역별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및 전년 대비 변동률

지역 (Region)	2025년 계획 (Planned)	2025년 실제 집행 (Actual)	계획 대비 실제 변동률 (%)	전체 실제 집행 중 비중 (%)	2024년 실제 집행 (Actual)	2024년 전체 중 비중 (%)	2025년 vs 2024년 변동률 (%)
아시아 1 (Asia 1)	1,194,967	1,195,087	0%	19%	2,625,552	28%	-54%
아시아 2 (Asia 2)	464,413	472,077	2%	8%	568,044	6%	-17%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389,528	386,019	-1%	6%	583,912	6%	-34%
중동&북아프리카 (MENA)	2,784,531	4,109,586	48%	67%	5,779,829	60%	-29%
글로벌 합계 (Global)	4,833,439	6,162,769	+28%	100%	9,557,337	100%	-36%

(주: 중동·북아프리카 및 아시아 1 지역의 성경 훈련 혜택 중 상당 부분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2. 사역 유형별 제공 혜택 분석

우리 지원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박해받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성경 훈련(Biblical Training)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전체의 약 61%를 차지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서적 문서 자료의 배포는 디지털 수단을 통한 복음 전파에 더 집중하면서 전년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표 1.2: 사역 유형별 지원 혜택 통계

사역 유형 (Ministry Type)	2025년 계획 (Planned)	2025년 실제 집행 (Actual)	계획 대비 실제 (%)	전체 중 비중 (%)	2024년 실제	2025 vs 2024 변동 수치	2025년 vs 2024년 변동률 (%)
옹호 사역 (Advocacy)	240,954	356,700	48%	6%	542,853	-186,153	-34%
성경 훈련 (Biblical training)	2,589,677	3,782,086	46%	61%	5,767,244	-1,985,158	-34%
문서/물품 배포 (Distribution)	1,371,810	1,220,087	-11%	20%	2,533,787	-1,313,700	-52%
연구 및 현장 임재 (Research & Presence)	233,753	352,580	51%	6%	176,570	+176,010	100%
사회경제 개발/구호 (SED)	397,245	451,316	14%	7%	536,883	-85,567	-16%
합계 (Total)	4,833,439	6,162,769	28%	100%	9,557,337	-3,394,568	-36%

1-3. 성별 및 연령별 수혜 통계

표 1.3: 성별 수혜자 분포

성별 (Gender)	2025년 계획	2025년 실제	실제 비중 (%)	2024년 실제	2024년 비중 (%)	변동 수치	변동률 (%)
여성 (Female)	1,199,704	2,094,373	34%	3,344,264	35%	-1,249,891	-37%
남성 (Male)	618,970	1,134,483	18%	1,363,582	14%	-229,099	-17%
혼합/미분류 (Mixed)	3,014,765	2,933,913	48%	4,849,491	51%	-1,915,578	-40%
합계	4,833,439	6,162,769	100%	9,557,337	100%	-3,394,568	-36%



표 1.4: 연령대별 수혜자 분포

연령 그룹 (Age group)	2025년 계획	2025년 실제	2024년 실제	변동 수치	변동률 (%)
성인 (25세 이상)	818,913	1,241,912	1,157,441	+84,471	7%
청소년 (15~24세)	1,471,482	2,614,473	1,652,502	+961,971	58%
아동 (0~14세)	232,859	234,564	329,642	-95,078	-29%
혼합 그룹 (Mixed)	2,310,185	2,071,820	6,417,752	-4,345,932	-68%
합계	4,833,439	6,162,769	9,557,337	-3,394,568	-36%

(주: 청소년 그룹에 대한 사역 강화로 해당 연령대 수혜가 약 100만 건 가까이(+58%) 크게 성장했습니다.)

2. 글로벌 전략 성과 (Global Strategic Outcomes)

우리의 글로벌 전략 성과는 박해받는 교회를 강화하려는 비전을 추구하면서 기대하는 변화를 높은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프로그램 성과 지표와 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표 2.1: 글로벌 전략 성과별 수혜자 및 지출 비중

글로벌 전략 성과 (GSO)	2025년 수혜자 수 (#)	2025년 수혜자 비중 (%)	2024년 수혜자 수 (#)	2024년 수혜자 비중 (%)	2025년 지출 총액 비중 (%)	2024년 지출 총액 비중 (%)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3,987,950	64.7%	2,925,937	30.6%	56.9%	53.8%
결코 혼자가 아님 (Never alone)	2,102,234	34.1%	5,974,939	62.5%	39.0%	37.2%
더 큰 참여 (Greater engagement)	16,125	0.3%	8,615	0.1%	0.5%	0.4%
목소리 내기 (Speaking out)	56,466	0.9%	645,307	6.8%	3.6%	8.5%
합계	6,162,775	-	9,554,798	-	-	-

2-2. 전략 성과별 주요 하이라이트

1) 소금과 빛 (Salt & Light)

변화 정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압박에 굴해 후퇴하는 대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 성경, 제자 양육 지침서, 옹호 및 박해 대비 자료를 배포하여 신자들이 믿음과 증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적 기반을 보장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기(SSTS)'와 같은 대면 훈련 프로그램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지화된 라디오 프로그램과 제자 양육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북한에서는 디지털 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신자들을 지원했습니다.

-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문해력 교실, 우물 파기, 교육 지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가 지역 사회 복지의 주체가 되도록 포지셔닝했고, 이를 통해 주변 공동체와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2) 결코 혼자가 아님 (Never Alone)

변화 정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상호 격려와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에 연결되는 것.

- 2025년 3월 지진이 발생한 미얀마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에게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 폭력적인 박해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심리 사회적 지원, 안전 가옥, 식량 배급,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학자금 및 과부 대상 표적 지원을 통해 신자들과 함께 섰습니다. 후속 방문은 실망을 줄이고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중앙아시아의 청각 장애인 및 난민들, 그리고 고립 위기에 처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신자들이 돌봄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정체성과 자신감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3) 더 큰 참여 (Greater Engagement)

변화 정의: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들과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의 환경에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용기가 성장하는 것.

- 특히 아프리카 같은 환경에서는 비교적 박해를 덜 받는 교회가 더 심한 박해를 받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대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시키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4) 목소리 내기 (Speaking Out)

변화 정의: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자신 있게 사용하여,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적·법적 공간을 넓히는 것.

- 아시아 전역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가자지구에서는 현지 동역자가 라틴 교회 대주교의 방문을 설득하는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어라이즈 아프리카(Arise Africa)' 캠페인의 일환으로 변호사, 저널리스트, 교회 지도자들과 고위급 자문 회의를 열어 집각적인 옹호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칸야(Kanya)와 폰사이(Phonesay)는 박해로 인해 마을에서 쫓겨난 여덟 가정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이들의 가정 교회는 여러분 덕분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자신의 집을 무참히 부수는 모습을 바라보며, 칸야의 입술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노에 찬 마을 주민들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맨손으로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며 칸야에게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도 했지요.” 이 분은 말합니다.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래 그날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마땅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칸야와 남편 폰사이가 극적으로 화해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자신

들의 신앙을 대중 앞에 공포하기 위해 집에 함께 모여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아 오픈도어의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28위를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에서는, 전통적인 정령 신앙(애니미즘)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가 커다란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명백한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칸야와 폰사이 부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집이 처참하게 파괴된 후, 이들 가족은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당했습니다. 부부와 네 자녀는 믿음



을 지킨 다른 일곱 가정과 함께 국유지인 깊은 숲속으로 내몰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기나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한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이들의 지하 교회는 척박한 땅 위에서 당당히 살아남아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사랑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 덕분에 오픈도어의 현지 동역자들은 이 작은 기독교 공동체에 기본적인 건축 자재와 식량을 지원할 수 있었고, 새로운 임시 거처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고르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폰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터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할 처소부터 지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어 진행된 박해 대비 훈련은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이 공동체가 자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폰사이는 “훈련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자립 프로젝트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칸야와 폰사이 부부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하 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

어 언제든지 당국에 의해 멈춰 설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숲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서로 신앙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폰사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칸야 역시 감사를 더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인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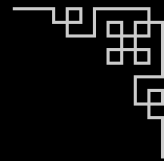


WWL
28

기도해 주세요

- 칸야 사역자의 고백을 담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품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폰사이 사역자의 고백을 담아
“우리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나은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도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본문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지연(遲延)된 부고[訃告]

청천벽력같은 충격적인 슬픈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전하게 되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5월 4일, 30여 년 간 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로 최전선에서
전세계 고난과 박해 당하는 교회들을 섬겨오신
김성태 이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설교들을 밤새워 녹화하시던 중
마지막 부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여, 지난 5/4부터 5/8일까지 한국오픈도어와 총신대학교,
사랑의 교회에 의해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사랑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세계의 백척간두 절체절명에 처한 박해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고 섬김을 통해
주님과 복음을 전파하는 오픈도어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김목사님의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 동역자 일동과
신현필 목사(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 드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금요기도회(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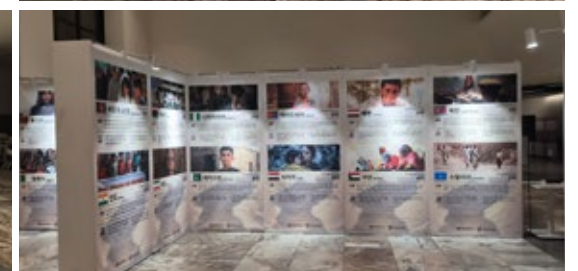
2026년 7월 24일(금) 밤 10시

주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장소: 헤린교회
(이바울 담임목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26)
설교 및 기도회 인도: 조남준 목사
문의: 02-596-3171
참고: 헤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자료를 활용한 행사 소식

6월에 금란교회(김정민 담임 목사)가 북한선교 전시회를 '세계를 품은 기도'를 컨셉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 지도와 50일
기도, 어린이 기도 여권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요, 금란
교회에서 이를 잘 활용하시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들을 성도님들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료 요청 및 문의: 02-596-3171, 010-7548-3171



각종 채널 안내

저희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 뉴스, 간증, 스토리, 기도 제목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TALK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_Open Doors)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1회 카카오톡으로
박해 뉴스, 현장 스토리 등이 담긴 Weekly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는 매일 박해받는 교회의 기도 제
목이 올라옵니다.



Instagram (@opendoors_kr)

f 페이스북(한국오픈도어)

유튜브('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 기도제목을
이메일로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QR코드
2. 문자 / 전화 신청 :

성함과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 신청

이라고 적어서 010-7548-3171번으로
문자주시거나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지하에서,



압박 속에서

중국에서는 진이 사역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지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끌다 남편이 투옥된 후, 진이는 비밀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금지된 곳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 6만 원으로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박해 대비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금 후원하기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029301-04-16709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선교회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후원 문의: 02-596-3171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여러분의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도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며, 사진은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OpenDoors